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가 제공하는 국내외 정신건강 연구 최신 정보

CURE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VOL. 11
October 2022

특집 | 정신건강의 날

Expert's View [논평] 03

- 정신건강 정책에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04

Current Research Trends [연구 동향] 07

정신질환 치료와 생물학적 변화 08

- 비렘수면 동안 해마-전전두 결합을 증가시키는 졸피뎀의 효과
- 급성기 조증의 임상적 치료 경과에 따른 구조적 뇌 연결성의 변화
- 좌측 입쪽 해마의 동적 기능적 연결성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의 항우울제 효능 예측 연구
-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인지적 손상을 표적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비인간 영장류 해마에서의 차등적 유전자 발현
- AMPA 수용체 팔미토일화 결핍 마우스에서 지속되는 맥락적 공포 기억

조기개입의 중요성 13

- 청소년의 굼뜬 인지적 템포와 우울의 종단적 관련성
- 공존하는 ADHD와 불안에 대한 발달 모형에서의 이해
- 생애 초기 누적된 위험이 아동기 사회정서적 및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크린타임의 매개효과
-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
- 생애 초기 스트레스 후 메스암페타민 중독에 대한 청소년기 옥시토신 처치 효과

정신질환 인식 개선 17

- 트위터 속 조현병 : 오용, 낙인화, 사소화를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 정신과에서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낙인의 역할
- 조현병의 경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분석
- 자살예방 전문가의 자기 낙인과 사회적 낙인
- 의과대학생 대상 낙인 완화 훈련과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의 긍정적 변화

정신건강 정책 및 제도 23

-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에 대한 정신건강 후견인제도
- 중증정신장애인 대상 거주시설과 지원주택의 효과성 비교연구
-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기능상태와 직업복귀
- 정신건강관리에서의 동료지원가 교육
- 재소자의 정신건강 요구도와 물질사용장애 유병률
- 젊은 근로자들에서 일반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CURE

October 2022 | vol.11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호 2022년 11호
발행인 이영문
편집인 박수빈
발행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제작부서 정신건강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전화 02) 2204-0373
홈페이지 www.ncmh.go.kr
디자인 및 제작 평강토탈프린팅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Expert's View
[논평]

1

「CURE-논평」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의 견해이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공식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신건강 정책에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기선완 단장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가톨릭관동대학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과거 신생개발도상국 시절 국가 발전을 위하여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에 먼저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교량, 항만, 통신과 같은 기초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만 했다.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비약적인 국가경제 발전을 이룬 지금 우리나라는 탄탄한 사회간접자본을 갖추고 물적 자본을 축적하여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국가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들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인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물적 자본보다 인적 자본 축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시대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적 생산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데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물적 자본 축적에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이란 그 사회의 신뢰, 협력 정도, 투명성, 공정과 정의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생산성이 있는 인력 양성이 국가의 명운을 가른다.

그런데 정신건강은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민의 정신건강이 좋으면 사회적 자본인 신뢰, 협력 등이 강화될 것이며, 사회적 자본이 든든하면 국민의 정신건강도 따라서 좋아질 것이다.[1] 인적 자본을 위해서는 사람의 교육 수준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은 교육과 건강에 크게 관여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허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도 적고 만성 정신질환을 대하는 방식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동시에 인권을 중시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회복 개념의 치료재활 모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대형 주립정신병원에 환자들을 입원시켜 치료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으나 오랜 입원으로 인한 수용화증후군의 문제, 치료 약물의 개발, 그리고 환자들의 인권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이른바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주립정신병원의 병상을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고 환자들을 퇴원시켜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물론 1960년대부터 시작된 탈원화가 지역사회의 충분한 준비없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탈원화가 아니라 횡수용화(transinstitutionalization)되고 환자들은 병원 밖을 나오지 못하고 회전문(revolving door)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결국 이런 큰 방향이 국가적인 공감대를 얻고 더욱 발전하여 정착하게 되었다.[2)]

영국에서는 미국의 탈원화와 지역사회관리 이전부터 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개방병동 운영이나 환경치료가 이미 발전하여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유럽 국가들도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치료, 재활,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개혁이 늦었으나 1978년 이탈리아 의회를 통과한 '법 180(Law 180)', 즉 제안자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프랑코 바살리아의 이름을 딴 '바살리아법'에 의거 정신병원에 새로운 입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극적인 탈원화와 지역사회관리를 채택하였다.[3)] 이탈리아는 전격적으로 신환의 입원을 금지하였으나 결국 기존의 입원 환자들을 모두 지역사회로 내보는 데 약 10년에 걸친 기간이 필요하였고 마침내 새로운 방식에 정착하였다. 지금 이탈리아에는 정신병원이 없으며 급성기 환자들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단기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재활치료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다시 의학의 본류로 돌려놓고 내과나 외과 환자들과 똑같이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따로 정신병원을 두지 않는 것을 정신의학의 주류화(mainstreaming)라 부른다.

호주의 경우 1992년경에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전국적인 탈원화와 주류화가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 거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소규모 입원 시설이 있고 퇴원 후 환자들은 지역사회센터에서 외래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4)]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광범위한 정신보건 개혁이 일어났으며 대만과 홍콩의 경우 지역 거점 공공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재활치료서비스, 낮병원,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시설과 연계하여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응급입원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공공 시설에 입원하기 때문에 입원과정에서 인권과 관련한 갈등도 많지 않다. 특히 홍콩은 1990년 대 이후로 탈원화와 지역사회 복귀 그리고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5)] 싱가포르의 경우 국립 정신병원은 단 하나 IMH(Institute of Mental Health)가 유일하며 정신의학의 전 영역을 담당하고 정신건강 교육과 정책에도 관여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기능을 하위 수준에서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과 치매 환자들에게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2012년 국가정신보건계획에서 AIC(Agency for Integrated Care)를 설립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 세계적으로 중증정신장애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추세이며 당사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당사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경향이고 이젠 공급자 중심의 재활에서 당사자 중심의 회복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회복'이란 정신질환의 큰 재앙을 딛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달시켜 가는 것으로 개인적이고 독특한 과정이다. 회복은 병이 완쾌되지 않았거나, 병에 의해 생긴 장애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기여하는 삶을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6]

정신장애는 신체장애처럼 장애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증상 조절과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특별한 분야이며, 이후 회복 과정에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고 회복 개념에 의해 전반적인 서비스가 치료팀에 의하여 조율되고 개별적으로 맞춤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기반한 Quality Rights에 근거하여 회복 개념에 의한 당사자 중심, 인권 중심의 Guidance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를 2021년에 발표하였다.[7]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서비스를 개선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며 분절화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합하는 대대적인 개혁의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 되었다.

참고문헌

1. Flores, E. C., Fuhr, D. C., Bayer, A. M., Lescano, A. G., Thorogood, N., & Simms, V. (2018). Mental health impact of social capital interventions: a systematic review.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3*(2), 107-119.
2. Geller, J. L. (1992).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role of state hospitals viewed from the era of the "revolving doo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11), 1526-1533.
3. Fioritti, A. (2018). Is freedom (still) therapy? The 40th anniversary of the Italian mental health care reform.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27*(4), 319-323.
4. Rosen, A. (2006). The Australian experience of deinstitutionalization: interaction of Australian culture with the development and reform of its mental health service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3*, 81-89.
5. Tse, S., Siu, B. W. M., & Kan, A. (2013). Can recovery-oriented mental health services be created in Hong Kong? Struggles and strategies.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0*(3), 155-158.
6. Sreeram, A., Cross, W., & Townsin, L. (2021). Effect of recovery-based interventions on recovery knowledge and attitude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garding recovery-oriented practice: A quantitative narrativ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30*(5), 1057-1069.
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Guidance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moting person-centred and rights-based approaches*. World Health Organization.

CURRENT RESEARCH IN MENTAL HEALTH

Current Research Trends
[연구 동향]

2

「CURE-연구 동향」에 수록된 원고는 외부로 게재, 인용, 및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각 논문의 자세한 내용은 원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 치료와 생물학적 변화

비렘수면 동안 해마-전전두 결합을 증가시키는 졸피뎀의 효과

출처 : Kersanté, F., Purple, R. J., & Jones, M. W. (2022). The $GABA_A$ receptor modulator zolpidem augments hippocampal-prefrontal coupling during non-REM sleep. *Neuropsychopharmacology,* 1-11.

링크 : https://doi.org/10.1038/s41386-022-01355-9

벤조디아제핀 및 'Z-약물'(졸피뎀 및 조피클론 포함)은 일반적으로 불면증이나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 수면제로 처방되는 GABAA 수용체 양성 조절제이다. 그러나 진정 작용과 함께 GABAAR 기능의 강화는 수면 중 잘 조율된 신경활동도 변화시켜, 기억응고화(memory consolidation)를 포함한 수면-의존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ersanté 등(2022)은 비렘수면의 기본 진동 동안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졸피뎀의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잠자는 랫드의 내측 변연전 피질(medial prelimbic cortex, PrL)과 배측 해마의 CA1(dorsal hippocampus, dCA1)에서 신경 집단 활동의 동시 기록을 분석하였다. 시냅스 말단의 GABAA 수용체에서 주로 작용하는 디아제팜과 4,5,6,7-테트라히드로 아이소사졸로(5,4-c)피리딘-3-올(THIP/gaboxadol)의 효과를 비교했다. 실험결과, 졸피뎀과 THIP은 디아제팜에 의해 감쇠된 서파(slow-waves, 0.5-4Hz)의 진폭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졸피뎀은 해마 리플(ripples, 125-200Hz) 밀도를 증가시킨 반면, 디아제팜은 리플 밀도와 고유 주파수를 모두 감소시켰다. 어떤 약물도 단독으로 시상피질 방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졸피뎀은 서파와 방추 사이의 시간적 조정을 증가시켰다. 523개의 PrL 뉴런과 579개의 dCA1뉴런의 세포 수준에서의 스파이크 활성 분석에 따르면, 졸피뎀은 dCA1와 PrL의 상관 활동을 증가시키는 한편, 서파 하강 상태 동안 피질 발화(cortical firing)에서 동기화된 일시 정지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비교된 약물 중 졸피뎀만이 비렘수면 동안 해마와 신피질 내부와 사이의 조정된 활동을 증가시켰다. 해마-전전두 피질 결합을 향상시키는 졸피뎀의 효과는 기억 처리를 조절할 수 있는 졸피뎀의 잠재력이 세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졸피뎀이 수면 동안의 기억응고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용량, 치료주기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면장애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급성기 조증의 임상적 치료 경과에 따른 구조적 뇌 연결성의 변화

출처 : Lei, D., Li, W., Tallman, M. J., Strakowski, S. M., DelBello, M. P., Rodrigo Patino, L., ... & Adler, C. M. (2022). Changes in the structural brain connectome over the course of a nonrandomized clinical trial for acute mania. *Neuropsychopharmacology,* 1-8.

링크 : https://doi.org/10.1038/s41386-022-01328-y

양극성장애에서 뇌 기능 네트워크의 구조적 이상은 많이 보고되었으나 구조적 연결 이상의 임상적인 의미는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게다가 양극성장애의 조증에 적용 가능한 약물 요법의 효능이 입증되었지만 그 작용 기전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따라서 Lei 등(2022)은 영상데이터에 기반한 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이전에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109명의 급성 조증 환자군과 60명의 건강한 대조군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환자군에게 퀘티아핀 또는 리튬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치료 전과 치료 1주차 및 8주차에 MRI 촬영을 진행하였다. 뇌 네트워크는 뇌 구조 영상을 통해 얻은 뇌 영역의 형태학적 특징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고 그래프 이론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치료 전 획득한 데이터 분석 결과 양극성장애 환자군은 정상인에 비해 그래프 분석 점수인 클러스터링 계수 및 정규화 경로 길이 점수에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치료 경과에 따른 분석에서는 치료 후 환자 데이터에서 정상인과의 그래프 분석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증상 개선과도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뇌의 구조적 연결 이상 여부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치료의 임상적 결과를 예측하고 뇌의 해부학적 약물 효과를 조사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좌측 입쪽 해마의 동적 기능적 연결성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의 항우울제 효능 예측 연구

출처 : Xue, S. W., Kuai, C., Xiao, Y., Zhao, L., & Lan, Z. (2022). Abnormal Dynamic Functional Connectivity of the Left Rostral Hippocampus in Predicting Antidepressant Efficac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Psychiatry Investigation, 19*(7), 562-569.

링크 : https://doi.org/10.30773/pi.2021.0386

주요우울장애의 치료에 있어 항우울제를 사용한 약물치료는 주된 치료 과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항우울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치료 반응을 관찰하고 치료 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전에 환자들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Xue 등(2022)은 해마 세부 영역의 동적 기능적 연결성(dynamic functional connectivity)과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의 항우울제 효과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특정 환자에 대한 항우울제 효과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70명의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와 43명의 건강한 대조군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휴식 상태 뇌 기능 자기 공명 영상(resting-state fMRI)을 기반으로 해마 하위 영역의 동적 기능적 연결성을 측정하였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이용한 약물치료 3개월 후 36명의 환자로부터 2차 fMRI 영상촬영을 진행하였고 우울 평가도구 점수에 따라 반응군(36명 중 23명), 무반응군(36명 중 13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주요우울장애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좌측 입쪽 해마(left rostral hippocampus)에서 동적 기능적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3개월 치료에 대한 반응군과 무반응군의 동적 기능적 연결성 분석 또한 반응군이 무반응군에 비해 좌측 입쪽 해마에서 더 낮은 연결성을 보였다. 우울 점수와 동적 기능 연결성과의 상관분석에서는 좌측 입쪽 해마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주요우울장애 환자가 좌측 입쪽 해마에서 더 낮은 동적 기능적 연결성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고 또한 3개월의 항우울제 치료 후 개선 여부와도 관계가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처럼 fMRI를 통해 뇌의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주요우울장애의 병태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아가 치료 효능의 예측을 통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인지적 손상을 표적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출처 : Keefe, R. S., Cañadas, E., Farlow, D., & Etkin, A. (2022). Digital Intervention for Cognitive Deficits in Major Depress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to Assess Efficacy and Safety in Adul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9*(7), 482-489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ajp.21020125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인지적 손상은 항우울제 치료를 받았거나, 우울증상이 관해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지적 손상은 전두정엽의 인지 통제 네트워크(fronto-parietal cognitive control networks)의 비효율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Keefe 등(2022)은 전두정 신경망(fronto-parietal network)을 활성화하여 주의력 및 주의 통제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비디오 게임 기반 디지털 치료제[1] 인 AKL-T03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의 우울증상과 객관적인 인지적 손상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항우울제 치료를 받고 있는 25-55세 성인 74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본 연구는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연구로 설계되었고, 참가자는 AKL-T03 치료제 또는 기대치에 상응하는 디지털 개입 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초기평가를 받고, 그 후 6주간 자택에서 배정된 각각의 치료에 참여한 후 다시 평가를 받았다. 1차 변수는 주의력 평가(Test of Variables of Attention, TOVA)의 전반부 수행에 대한 반응시간으로 측정한 지속적 주의력이었으며 초기평가로부터의 향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2차 변수는 TOVA 외 다른 인지적 평가도구를 통해 측정한 주의력과 임상적 평가도구를 통해 측정한 기분, 삶의 질 등이었고, 점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1차 변수 분석 결과, AKL-T03(N=37) 참가자는 대조군에 비해 지속적 주의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 효과 크기(partial η^2=0.11)의 개선을 보였다. 또한 1차 및 2차 변수에 포함된 각각의 인지 평가도구의 z-점수들을 평균하여 구한 종합 점수에서도 AKL-T03 참가자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변수 분석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KL-T03을 실시하는데 있어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AKL-T03 참가자 중 2명(5.5%)이 치료관련 이상반응으로 두통을 보고하였다. AKL-T03을 사용한 치료는 대조군 개입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주의력에서 상당한 개선을 나타내, 주요우울증과 관련된 인지적 손상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부작용이 적고, 치료적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미치료 환자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근거기반 치료제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비인간 영장류 해마에서의 차등적 유전자 발현

출처 : Choi, M. R., Jin, Y. B., Kim, H. N., Lee, H., Chai, Y. G., Lee, S. R., & Kim, D. J. (2022).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in the Hippocampi of Nonhuman Primates Chronically Exposed to Methamphetamine, Cocaine, or Heroin. *Psychiatry Investigation, 19*(7), 538-550.

링크 : https://doi.org/10.30773/pi.2022.0004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코카인 및 헤로인은 해마의 신경 가소성 및 인지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유발한다. Choi 등 (2022)은 이들 약물에 대한 반응으로 원숭이의 해마에서 차등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 하였다. 원숭이에게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및 헤로인을 만성적으로 노출시킨 후, RNA-Seq 기술과 차등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에 기능적 주석을 사용하여 해마의 대규모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을 수행했다. RNA-Seq 분석 데이터에서 선택된 일부 유전자는 역전사-정량적 중합효소 연쇄 반응(RT-qPCR)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면역조직화학법을 이용하여 ADAM10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평가하였다. RT-qPCR 실험결과, 약물 처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축삭 유도(PTPRP 및 KAL1), 세포 주기(TLK2), 칼륨 이온 조절(DPP10) 관련 유전자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모든 그룹의 비교 분석에서는 시냅스 장기 강화와 관련된 유전자 중 CREBBP와 GRIN3A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메스암페타민 및 헤로인 처리 그룹 모두에서 하향 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AM10의 mRNA 및 단백질 발현 수준은 대조군에 비해 메스암페타민 처리군에서 감소하였으나, 코카인 처리군에서는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또는 헤로인의 만성 투여에 의해 해마에서 상향 조절 및 하향 조절되는 유전자에 대한 이해와 약물 남용으로 발생한 해마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AMPA 수용체 팔미토일화 결핍 마우스에서 지속되는 맥락적 공포기억

출처 : Oota-Ishigaki, A., Takao, K., Yamada, D., Sekiguchi, M., Itoh, M., Koshidata, Y., ... & Hayashi, T. (2022). Prolonged contextual fear memory in AMPA receptor palmitoylation-deficient mice. *Neuropsychopharmacology,* 1-10.

링크 : https://doi.org/10.1038/s41386-022-01347-9

외상성 공포기억이 지나치게 오래 남아있는 것은 장기간 지속되는 공포 관련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시냅스 AMPA(α-amino-3-hydroxy-5-methyl-4-isoxazole propionate) 수용체의 팔미토일화-의존적 제거(palmitoylation-dependent removal) 후 과흥분으로 인한 뇌전증 발작이 예방되었고, AMPA 수용체의 팔미토일화(palmitoylation)[2]는 신경망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Oota-Ishigaki 등(2022)은 AMPA 수용체 서브유닛 GluA1 C-말단 팔미토일화 결핍(GluA1C811S) 마우스를 대상으로 포괄적 행동 검사를 수행하여 돌연변이가 다른 신경정신과적 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지 연구하였다. 행동분석 결과, GluA1C811S 마우스는 초기단계(basal level)에서 불안과 유사한 행동 장애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GluA1의 팔미토일화 결핍이 특징적인 장기간의 맥락적 공포기억 형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이 변이 마우스에서 단서화된 공포(cued fear)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공포 일반화(fear generalization)는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GluA1C811S 마우스에서는 조건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공포 소거 훈련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기저외측 편도체(basolateral amygdala)의 추체 신경세포(pyramidal neuron)에서 시냅스 신경전달의 증가 소견과 일치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운동성, 사회성, 우울 관련 행동, 공간학습과 기억은 GluA1의 비(非)팔미토일화(non-palmitoylation) 돌연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AMPA 수용체 팔미토일화의 손상이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GluA1의 팔미토일화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개입을 개발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팔미트산이 황화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세포 내 시스테인에 공유 부착되는 작용

조기개입의 중요성

청소년의 굼뜬 인지적 템포와 우울의 종단적 관련성

출처 : Fredrick, J. W., Langberg, J. M., & Becker, S. P. (2022). Longitudinal association of sluggish cognitive tempo with depression in adolescents and the possible role of peer victimization.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6), 809-822.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22-00923-3

과도한 공상, 딴생각, 멍하니 있기, 활동저하 등을 특징으로 나타내는 굼뜬 인지적 템포(sluggish cognitive tempo, SCT)는 주로 ADHD의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내재화 장애, 특히 우울과도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에서 SCT가 우울을 종단적으로 예측하는지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Fredrick 등(2022)은 청소년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SCT가 2년 후 우울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peer victimization)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302명의 청소년(평균연령 약 13세)을 대상으로 2년 간 총 세 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 시점에서 청소년과 그 부모는 SCT, ADHD, 우울 증상에 대한 질문지에 응답하였고, 두 번째 시점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 세 번째 시점에서는 우울 증상에 대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SCT와 우울의 관련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첫 번째 시점에서 측정한 ADHD와 우울을 통제한 모형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을 모두 분석했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또래 괴롭힘 피해는 신체적(때리기, 밀치기), 언어적(놀리기, 험담하기), 관계적(소문 퍼뜨리기) 피해 3가지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청소년과 부모가 평가한 SCT 증상은 2년 후 우울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 지역, ADHD, 우울 증상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또한 SCT는 또래 괴롭힘 피해 중 언어적 피해를 통해 2년 후 우울 증상을 예측하였는데,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유지되었으나 우울증상까지 통제하였을 때는 더 이상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SCT를 나타내는 청소년을 선별하고 개입하여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SCT와 우울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으로써 또래 괴롭힘 피해의 역할을 확인한 바,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학교기반의 개입이 적용된다면 SCT가 우울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존하는 ADHD와 불안에 대한 발달 모형에서의 이해

출처 : Havewala, M., Lorenzo, N. E., Seddio, K., Oddo, L. E., Novick, D. R., Fox, N. A., & Chronis-Tuscano, A. (2022). Understanding Co-Occurring ADHD and Anxiety Symptoms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Early Temperament and Peer Relations.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7), 853-866.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21-00891-0

아동·청소년에서 ADHD와 불안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만, 두 질환을 공존하게 하는 위험요인과 이를 방지하는 보호요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두 질환의 공존 문제에 대한 고위험 아동을 식별하고 개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Havewala 등(2022)은 개인적 특성인 행동억제 기질과 환경적 특성인 또래 관계(또래 지지, 또래 괴롭힘 피해)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기에 ADHD가 있었던 청소년 중 어떤 이들이 불안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는 291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는데, 연구 대상 청소년이 2-3세일 때 관찰을 통해 행동억제를 측정하였고, 7세에는 부모가 자녀의 ADHD 증상을 평가하였다. 12세와 15세에는 청소년이 각각 또래 관계와 불안증상에 대해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 행동억제와 또래 지지가 ADHD와 불안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기에 낮은 행동억제 기질을 보이고, 초기 청소년기에 낮은 수준의 또래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에서만 ADHD 증상이 이후의 불안증상을 예측 하였다. 본 연구는 ADHD 아동의 발달 초기 행동억제 기질과 초기 청소년기 또래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청소년기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정신질환의 발달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있어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조기 선별과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생애 초기 누적된 위험이 아동기 사회정서적 및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크린타임의 매개효과

출처 : McArthur, B. A., Browne, D., Racine, N., Tough, S., & Madigan, S. (2022). Screen Time as a Mechanism Through Which Cumulative Risk is Related to Child Socioemotional and Developmental Outcomes in Early Childhood.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6), 709-720.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21-00895-w

스크린타임(screen time)은 휴대폰이나 TV, PC 등 전자기기를 시청하거나 이용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동의 스크린타임이 길어질수록 사회정서적 및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McArthur 등(2022)은 근접(proximal)[3] 요인인 초기 아동기 스크린타임과 양육의 질이 임신 기간 동안 산모를 통해 측정된 원격(distal)[4] 누적 위험요인과 태어난 아이가 5세가 되는 해에 측정된 사회정서적 및 발달 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분석에는 1,992명의 어머니와 자녀의 출생 코호트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산모들은 임신 기간 동안의 누적 위험요인(어머니의 수입, 교육 수준, 우울, 스트레스, 결혼 상태, 주거 형태, 실업, 아동기 역경 경험)에 대해 응답하였고, 자녀가 3세일 때의 양육의 질(적대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양육, 긍정적 상호작용)과 아동의 스크린타임(주당 사용 시간)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이 5세일 때 사회정서적(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및 발달(발달 과업 달성 여부) 결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누적 위험이 스크린타임을 통해 내재화 증상과 발달 과업 달성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 중 산모가 보고한 누적 위험은 자녀가 3세일 때 더 높은 수준의 스크린타임과 관련이 있었고, 이는 5세 때 사회정서적 문제 및 발달 지연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누적 위험은 적대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양육 행동을 통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신기간 동안 부모의 정신건강과 가족 환경에 대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누적된 위험이 계속 존재하더라도 자녀 출생 후 스크린타임의 조정, 양육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스크린타임, 양육경험과 같이 아동이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환경

4) 양육자의 정신질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이 근접 환경을 형성하는 요인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

출처 : Blöte, A. W., Miers, A. C., & Westenberg, P. M. (2022). Concurrent and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anxiety and responses to stress in adolescence. *Research o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50*(5), 659-668.

링크 : https://doi.org/10.1007/s10802-021-00880-3

사회불안 증상은 초기 청소년기에 증가하며 대개 이 시기에 사회불안장애가 발병한다. 특히 사회적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경우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사회불안이 아닌 일반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를 다뤘거나, 혹은 사회불안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연구대상이 아동이거나 횡단적인 관련성만을 조사하였다. 이에 Blöte 등(2022)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과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횡단적,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9-17세 청소년 331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총 5년간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사회불안, 스트레스 반응, 우울증상을 평가하였다. 스트레스 반응과 사회불안의 횡단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트레스 반응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사회불안이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지연모형으로 종단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사회불안과 부적응적 스트레스 반응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 반응이 사회불안을 예측하였고, 이 사회불안이 다시 스트레스 반응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정서조절, 문제해결과 같은 적응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잘 사용하지 못해 사회불안을 나타내게 되며, 이렇게 발생한 사회불안은 그 이후의 다양한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기 발달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아직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보이지는 않지만, 적응적 스트레스 반응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훈련하는 예방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며, 이미 사회불안으로 발달한 중·후기 청소년의 경우 회피,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반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적응적인 반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생애 초기 스트레스 후 메스암페타민 중독에 대한 청소년기 옥시토신 처치 효과

출처 : Baracz, S. J., Robinson, K. J., Wright, A. L., Turner, A. J., McGregor, I. S., Cornish, J. L., & Everett, N. A. (2022). Oxytocin as an adolescent treatment for methamphetamine addiction after early life stress in male and female rats. *Neuropsychopharmacology, 47*(8), 1561–1573.

링크 : https://doi.org/10.1038/s41386-022-01336-y

생애 초기 스트레스(early life stress, ELS)는 신경발달의 교란과 중독을 포함한 정신건강 장애에 대한 취약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 ELS가 중독 위험을 증가시키는 뇌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ELS로 인해 유발된 취약성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ELS는 중독 민감성을 조절하는 옥시토신 체계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옥시토신 체계를 표적 대상으로 삼는다면 공존하는 ELS와 -중독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Baracz 등(2022)은 ELS 이후 청소년기에 옥시토신 처치가 (1) 불안, 사회적 결함, 메스암페타민 섭취 및 재발(reinstatement)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지, (2) 시상하부 옥시토신과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방출인자(corticotropin-releasing factor)를 발현하는 뉴런과 체내 순환 옥시토신 및 코르티코스테론(corticosterone) 수치를 회복시키는지 연구하였다. 출생 후 1일부터 21일 동안 갓 태어난 새끼 랫드를 매일 15분 또는 360분 간 모체와 분리하였다. 출생 후 28~42일인 청소년기에는 해당 군에 따라 각각의 랫드에 옥시토신 또는 생리식염수를 투약하였다. 실험 1에서 성체가 된 랫드에 높은 십자형 미로(elevated plus-maze) 실험, 사회적 교류 실험, 소거, 조건화, 메스암페타민 및 요힘빈 유도 재발 실험을 포함한 메스암페타민 자가투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2에서는 성체 랫드에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후 면역측정법으로 혈장 내 효소를 측정하고, 뇌 조직을 형광면역염색하였다. 청소년기의 옥시토신 처치는 암수 모두에서 ELS로 인해 유발된 불안을 개선하였고, 메스암페타민 및 요힘빈 유도 재발을 감소시켰다. 또한 수컷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섭취를 억제하였고, 약물 소거를 촉진하였다. 더불어 ELS 이후 청소년기 옥시토신 처치를 받은 수컷에서 옥시토신-면역활성 세포와 스트레스로 유도된 옥시토신 수치가 회복되었고, 암수 모두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코르티코스테론 수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시토신 처치가 ELS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기 정신병리와 중독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향후 임상적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ELS로 유발되는 정신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신질환 인식개선

트위터 속 조현병
:오용, 낙인화, 사소화를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

출처 : Kara, U. Y., & Şenel Kara, B. (2022). Schizophrenia on Turkish Twitter: an exploratory study investigating misuse, stigmatization and trivializat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7*(3), 531-539.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21-02112-x

전통적인 방식(면대면 설문조사,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낙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향된 응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수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Kara 등(2022)은 트위터에서 얻은 터키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현병과 조현병에서 파생된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오용되는지, 그리고 낙인 현황은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2019년 6월~7월 동안 트위터의 검색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5]를 통해 조현병 및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트윗[6]을 수집하였다. 총 44,266개의 트윗을 수집하였고, 이 중 리트윗을 제거한 24,529개의 트윗 중 3,000개의 트윗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이후 각 트윗을 사용유형(은유적, 비은유적), 태도(낙인화, 사소화, 중립, 기타, 지지), 주제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사용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트윗(91.7%)이 조현병 및 관련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태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트윗이 조현병을 낙인화(68.3%)하고, 사소화(23.0%)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지지적인 태도를 보인 트윗은 0.8%에 그쳤다.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 조현병 관련 용어가 가장 흔히 쓰이는 트윗의 주제는 정치(58.2%)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일상적/사회적 이야기(28.5%)가 많았다. 한편 오직 0.2%의 트윗만이 조현병 인식개선과 관련된 트윗을 썼다. 조현병 및 관련 용어들은 주로 개인적, 정치적 모욕의 의도를 지니고 낙인화하는 방식으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반대로 일상적/사회적 이야기 맥락에서는 이상하거나, 특이한 것에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소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현병 및 관련 용어를 오용하는 트윗들은 수천 회 이상 공유되며,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이러한 트윗을 접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평가도구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의 오용, 낙인화, 사소화 양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인식 개선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표적 및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5) 기업이나 개발자, 사용자 등이 트위터 API를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트위터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공유한 데이터에 엑세스할 수 있음

6) 텍스트, 사진, GIF, 동영상 등을 담아 트위터에 올리는 메시지. 내가 올린 트윗이나 다른 사람이 올린 트윗을 다시 올리는 것, 즉 공유하는 것을 리트윗이라고 함.

정신과에서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낙인의 역할

출처 : Steiger, S., Moeller, J., Sowislo, J. F., Lieb, R., Lang, U. E., & Huber, C. G. (2022). Approval of coercion in psychiatry in public perception and the role of stigmatization. *Frontiers in psychiatry, 12,* 1-10.

링크 : https://doi.org/10.3389/fpsyt.2021.819573

강압적 조치(coercive measure)[7]의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정신과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이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며, 강압적 조치는 이러한 위험성을 다루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낙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강압적 조치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위험하다는 낙인으로 다시금 순환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반감, 거부감, 배척, 차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Steiger 등(2022)은 대중들이 정신과의 강압적 조치를 수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강압적 조치와 낙인, 개인 및 상황 특정적 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스위스의 일반 인구 2,2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상인물이 지닌 정신과적 증상을 묘사하는 글을 읽고, 해당 인물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지 평가하게 하였다. 가상인물의 성별, 정신질환의 종류, 위험행동의 정도(위험행동 없음, 자해, 타해)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제공하였고, 낙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이야기 속 가상인물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8]의 정도와 지각된 위험성의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강압적 조치가 가상인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정신질환에 대한 친숙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이야기 속 가상인물이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정신병적 장애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강압적 조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강압적 조치에 대한 참가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졌다. 반면 자기 자신 혹은 주변 사람들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강압적 조치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졌다. 강압적 조치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기존의 법적제도와 의료지침, 즉 자해 및 타해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거나, 다른 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강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일관되는 양상이었다. 강압적 조치는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효율적일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자유에 반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그리고 낙인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개입 방법으로 여겨진다. 향후 정신질환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방식을 활용한 낙인 완화 프로그램과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법적제도와 의료지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7) 환자의 의지에 반하는 혹은 환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조치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 입원, 비자발적 약물치료, 격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출처 : Chieze, M., Clavien, C., Kaiser, S., & Hurst, S. (2021). Coercive measures in psychiatry: a review of ethical arguments. Frontiers in psychiatry, 12:790886).

8) 정신질환자와의 사회적 관계(직장동료, 이웃, 가족 구성원의 배우자 등)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함.

조현병의 경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출처 : Salunkhe, G., Böge, K., Wilker, T., Zieger, A., Jena, S., Mungee, A., ... & Hahn, E. (2022). Perceived Course of Illness on the Desire for Social Distance From People Suffering From Symptoms of Schizophrenia in India. *Frontiers in Psychiatry, 13,* 1-8.

링크 : https://doi.org/10.3389/fpsyt.2022.891409

조현병은 낙인찍히기 쉬운 질병 중 하나로,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조현병에 대한 낙인 해소가 중요한 사안이다. 특정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추측이나 가설은 그 질병에 대한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념을 수정하는 것은 낙인을 완화시키는 주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에 Salunkhe 등(2022)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조현병의 경과가 차별적 행동을 측정하는 지표인 사회적 거리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인도에서 수행된 본 연구는 성별, 연령, 종교로 층화된 447명의 참가자를 5개 도시에서 모집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조현병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증상을 나타내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한 뒤 사회적 거리감을 평가하게 하였고, 조현병의 경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조현병 환자가 향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조현병에 대한 치료가 효과적일지 등을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경과 인식에 대한 기저의 주요 요인을 식별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추출된 요인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질병의 경과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사회적 기능의 상실 및 타인에게 일생 동안 의존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치료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료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만이 사회적 거리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이 조현병의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조현병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조현병의 긍정적 예후와 경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여 대중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기반의 치료 보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현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물리적인 형태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하겠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분석

출처 : Yang, O. K., Kim, S. W., Hyun, J., Lee, K., Paik, J. W., & Lee, Y. R. (2022).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Psychiatry Investigation, 19*(6), 480-487.

링크 : https://doi.org/10.30773/pi.2021.0364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대중매체가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더 공고히 한다. Yang 등(2022)은 대중매체 노출을 통해 형성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태도가 차별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약 2개월 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에 거주 중인 성인 62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도구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발췌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험을 대중매체를 통한 가상경험과 직접경험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을 각각 평가하였다. 연구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가상경험이 편견을 통해 차별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직접경험이 편견을 통해 차별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매체를 통한 가상경험은 편견을 통해서만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접경험은 편견을 통해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직접경험이 편견을 통하지 않고도 차별행동에 바로 영향을 미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접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는 차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편견과 낮은 수준의 차별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주의 깊게 다뤄야 하며, 동시에 중증 정신질환자와 만남의 기회가 있는 인식개선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살예방 전문가의 자기 낙인과 사회적 낙인

출처 : Roškar, S., Kralj, D., Andriessen, K., Krysinska, K., Vinko, M., & Podlesek, A. (2022). Anticipated Self and Public Stigma in Suicide Prevention Professionals. *Frontiers in Psychiatry, 13,* 1-8.

링크 : https://doi.org/10.3389/fpsyt.2022.931245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추구(help-seeking)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낙인의 영향을 받지만 자주 간과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다. 이에 Roškar 등(2022)은 국제자살예방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의 자살예방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자살행동, 도움추구에 대한 낙인 수준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자살예방 전문가들 중 자살행동이나 정신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낙인[9]과 자기 낙인[10]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83명의 자살예방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정신질환과 자살행동의 과거력을 조사하고, 정신질환과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 낙인과, 자살행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였다. 낙인은 실제 정신질환이 있을 때 발생하지만,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낙인을 예상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예상된 형태의 자기 낙인과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였다. 도움추구에 대한 예상된 자기 낙인을 예측하는 매개 모형 즉, 정신질환 과거력이 정신질환에 대한 예상된 자기 낙인을 통해 도움추구 자기 낙인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자살행동 과거력이 자살행동에 대한 예상된 사회적 낙인을 통해 도움추구 자기 낙인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 과거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자기 낙인을 통해 도움추구 자기 낙인을 예측하였던 반면, 자살행동 과거력은 자살행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졌으나 도움추구 자기 낙인을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흔히 정신건강 전문가는 전문지식이 있어 정신질환과 낙인에 대한 면역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건강 전문가 또한 취약한 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내담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 및 치료 인식 개선과 정신건강에 대한 자가검진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가 보이는 태도나 의견에 대한 개인의 인식.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이 두렵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다'와 같은 편견과 차별을 포함함 (출처: Latalova, K., Kamaradova, D., & Prasko, J. (2014). Perspectives on perceived stigma and self-stigma in adult male patients with depression. Neuropsychiatric Disease Treatment, 10, 1399-1405; Corrigan, P.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10)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내재화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 예를 들어, '나는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무능하다', '나는 이렇게 무능한데 왜 직업을 가지려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와 같은 편견과 차별을 포함함(출처 : 위와 동일)

의과대학생 대상 낙인 완화 훈련과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의 긍정적 변화

출처 : Potts, L. C., Bakolis, I., Deb, T., Lempp, H., Vince, T., Benbow, Y., ... & Henderson, C. (2022). Anti-stigma training and positive changes in mental illness stigma outcomes in medical students in ten countries: a mediation analysis on pathways via empathy development and anxiety reduct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7*(9), 1861-1873.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22-02284-0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완화 개입 연구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태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낙인 완화 훈련의 경우, 태도를 비롯한 신념의 변화와 낙인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야 하며, 환자와의 상호작용 기술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Potts 등(2022)은 이러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Responding to Experienced and Anticipated Discrimination(READ)' 개입을 의과대학생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 READ 개입 전과 후에 측정한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태도, 의사소통 기술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READ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2) 이러한 READ의 효과가 공감 능력과 불안 수준을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속한 10개국의 13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정신과에서 임상실습 중인 의과대학생 57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속한 지역에서 READ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READ 개입 혹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중 한 곳에 비(非)무작위로 배정하였다. READ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하였으며, 의사소통 기술은 학생이 모의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여 측정하고, 이 과정에서 모의 환자가 학생의 공감적인 태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인 공감 능력과 불안 수준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확인 하였다. 연구결과, READ 개입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태도, 의사소통 기술, 환자가 평가한 공감적 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예측하였다. 매개분석 결과, READ 개입이 공감 능력의 증가와 불안 감소를 통해 지식, 태도, 기술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동시에 READ 개입이 지식, 태도, 기술 각각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여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자가 평가한 공감적 태도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낙인 완화 프로그램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추고, 공감 및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높은 공감 능력과 낮은 불안 수준이 지식, 태도, 기술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낙인 완화 프로그램 제공 시 개입 표적으로써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건강 전문 인력에서도 낙인 완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검증된다면 정신건강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건강 정책 및 제도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에 대한 정신건강 후견인제도

출처 : Choi, K. R., Castillo, E. G., Seamans, M. J., Grotts, J. H., Rab, S., Kalofonos, I., ... & Starks, S. L. (2022). Mental Health Conservatorship Among Homeless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73*(6), 613–619.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ps.202100254

노숙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중증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취약한 환경에 놓이기 쉽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nterman-Petris-Short(LPS) 법을 시행하여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LPS법에서는 후견인제도를 시행하여 중증정신질환자들이 건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oi 등(2022)은 LPS법을 바탕으로 노숙 여부와 비자의 입원 기간(72시간, 14일, 30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후견인제도가 노숙인이 퇴원 후 가는 곳(가정, 폐쇄 정신과 시설, 개방 정신과 시설, 무주택)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로스엔젤레스 정신과에 비자의 입원한 성인 795명에 대한 병원 행정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비자의 입원 시 노숙 상태인 경우 입원일수가 27.5일 더 길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입원 일수가 더 긴 것과 연관이 있었다. 또한 후견인제도를 이용한 노숙인들은 퇴원 시 폐쇄 정신과 시설로 퇴원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고 무주택 퇴원의 경우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자의 입원 기간이 14일인 경우에는 30일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개방 정신과 시설로 퇴원하는 경우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무주택 퇴원의 경우는 1.4배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나이가 어린 노숙인일수록 가정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고, 다른 해에 비해 2018년에 무주택 퇴원의 감소, 개방 정신과 시설로의 퇴원 증가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인제도가 중증정신장애를 가진 노숙인이 길거리가 아닌 주거형 정신과 치료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기여함이 시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후견인제도는 장기적으로 노숙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관련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리 기반 치료와 같은 정신과 진료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노숙인 장기 주거 및 정신건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증정신장애인 대상 거주시설과 지원주택의 효과성 비교연구

출처 : Dehn, L. B., Beblo, T., Richter, D., Wienberg, G., Kremer, G., Steinhart, I., & Driessen, M. (2022). Effectiveness of supported housing versus residential care in severe mental illness: a multicenter, quasi-experimental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7*(5), 927-937.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21-02214-6

중증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광범위한 주거서비스 가운데 거주시설(residential care)은 하루 24시간 사례관리자가 상주해 재활훈련, 치료,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은 사례관리자가 일주일에 2~12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의 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각각의 주거 형태가 중증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능, 삶의 질, 정신병리에 있어 어떠한 효능과 효과를 보이는지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무작위대조연구도 없는 편이다. 이에 Dehn 등(2022)은 거주시설이 지원주택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가정하고 독일의 30개 이상 지역에서 지원주택(153명)과 거주시설(104명)에 있는 노숙인이 아닌 중증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향적 관찰추적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들의 진단명은 물질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정동장애 또는 기타 정신장애 등이었고, 표본편향을 피하기 위해 성향점수일치방법을 사용하여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적 기능, 정신과 입원 횟수, 정신질환, 삶의 질을 기저선 시점과 그로부터 1년, 2년 뒤 각각 측정하였고, 분석에서는 반복 측정 ANOVA를 사용했다. 거주시설, 지원주택 두 집단 모두 결과에서 시간의 상당한 효과들이 나타나 연구기간 동안 사회적 기능과 삶의 질 모두 향상되었으며, 정신병리 증상의 저하도 없었다. 하지만, 두 집단 간 결과 측정치의 차이도 없었다. 정신과 입원 횟수 역시 두 집단 모두 감소했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주택 및 거주시설 서비스 모두 2년 동안 동일한 임상 및 심리사회적 결과를 달성함을 보여주는 이 연구결과가 중증정신장애인들의 지원주택 서비스의 확장과 다양한 주거서비스 이용확대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기능상태와 직업복귀

출처 : Hong, J. P., Lee, C. H., Lee, Y. H., Escorpizo, R., Chiang, Y. C., & Liou, T. H. (2022). Functional status and return to work in people with major depression: a 3-year national follow-up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7*(6), 1179-1188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22-02240-y

주요우울장애의 주요 특징은 감정적,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포함하고 있어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약 60%가 정신약리학적 치료 후에도 행동적 회피, 사회적 고립, 인지적 장애 등의 심각한 기능손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직업복귀는 주요우울장애와 관련된 기능손상을 회복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주요우울장애에서 기능회복에 따른 직업복귀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Hong 등(2022)은 대규모 국가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3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주요 우울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향상과 직업복귀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대만의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대규모 데이터에서 2012년 7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추출하였고, 18~64세 4,038명의 성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능상태 측정은 세계보건기구 기능제약평가목록을 사용했고, 기능향상과 직업복귀 간의 연관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초기시점 기능상태를 포함한 혼입변수를 보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45세 이상의 여성들이 오랫동안 실직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직업에 복귀한 사람은 인지, 이동성, 자기 돌봄, 사회적 활동, 일상활동, 사회적 참여 등에 있어 실직자에 비해 더 나은 기능상태를 보였다. 또한 초기시점에 동일하게 무직이었으나, 3년 이내에 직업에 복귀한 경우 무직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보다 기능향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우울장애가 환자에서 직업복귀가 기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요우울장애 치료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으로의 복귀,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더불어 여성에서 주요우울장애의 유병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중년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직업복귀 정책이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다.

정신건강관리에서의 동료지원가 교육

출처 : Vigué, G. P., Prieto, I. C., del Río Sáez, R., Masana, R. V., & Algado, S. S. (2022). Training Peer Support Workers in Mental Health Care: A Mixed Methods Study in Central Catalonia. *Frontiers in psychiatry, 13,* 1-14.

링크 : https://doi.org/10.3389/fpsyt.2022.791724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건강관리는 개인회복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개인회복 과정 전략에는 동료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두 정신건강 기관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다학제적 의료팀에 고용하는 방식으로 동료지원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에 Vigué 등(2022)은 정신건강에서 동료개입이 동료지원가, 서비스 이용자, 정신건강전문가로 이루어진 세 집단의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들은 삼각검증법을 활용한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고 자기낙인, 삶의 만족도, 사회참여, 개인회복, 직업성과 척도를 사용하여 동료지원가 프로그램이 동료지원가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료지원가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동료지원가 프로그램은 동료지원가의 직업성과에 대한 인식, 특히 구직능력(p=0.038),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것(p=0.016), 사회참여(p=0.011), 그리고 구직능력에 대한 만족도(p=0.031)에 대해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집단의 참가자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동료지원가는 유용성을 느끼고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서비스 이용자는 이 경험을 회복과정에서 희망과 낙관의 원천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정신건강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가적 성장에 있어 긍정적 단계로써 이 프로그램을 묘사했다. 본 연구결과는 동료지원가 활동을 통해 동료지원가는 삶의 의미를 찾고,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는 추가적 지지를 제공받음으로써 정신건강기관의 회복모델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동료지원가 활동을 기존 정신건강 관리 방식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로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소자의 정신건강 요구도와 물질사용장애 유병률

출처 : Butler, A., Nicholls, T., Samji, H., Fabian, S., Lavergne, M. R. (2022). Prevalence of Mental Health Needs, Substance Use, and Co-occurring Disorders Among People Admitted to Prison. *Psychiatric Services, 73*(7), 737-744.

링크 : https://doi.org/10.1176/appi.ps.202000927

교도소 재소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정신질환 및 물질사용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교도소 재소자 수가 증가하였고 정신질환 유병률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적절한 교정 처우를 내리기 위해서는 재소자들의 정신질환 및 물질사용장애 유병률에 대한 최신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Butler 등(2022)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요구도(mental health needs)와 물질사용장애 유병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재소자들의 정신건강 정보를 알 수 있는 교도소 선별 평가 도구(Jail Screening Assessment Tool) 데이터와 재소자들의 형사사법 정보가 기록된 교정 운용 네트워크(Corrections Operations Network) 데이터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에는 9년간(2009년-2017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10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47,117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2009년에서 2017년으로의 유병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소자에서 정신건강 요구도는 9.9%에서 14.8%로 증가하였으며, 물질사용장애는 36.7%에서 27.9%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물질 종류별로 증가 양상을 보인 경우도 있었는데, 메스암페타민 사용장애가 6%에서 29%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헤로인 사용장애가 11%에서 26%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정신건강 요구도와 물질사용장애가 공존하는 재소자의 비율이 14.5%에서 32%로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 연구결과는 정신건강 요구도와 물질사용 장애가 공존하는 재소자와 메스암페타민 사용장애가 있는 재소자가 크게 증가 하였음을 시사한다. 재소자들의 건강 문제가 지역사회 내 치료와 지원의 부족, 빈곤의 범죄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반영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재소자들의 복합적인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는 공중보건 및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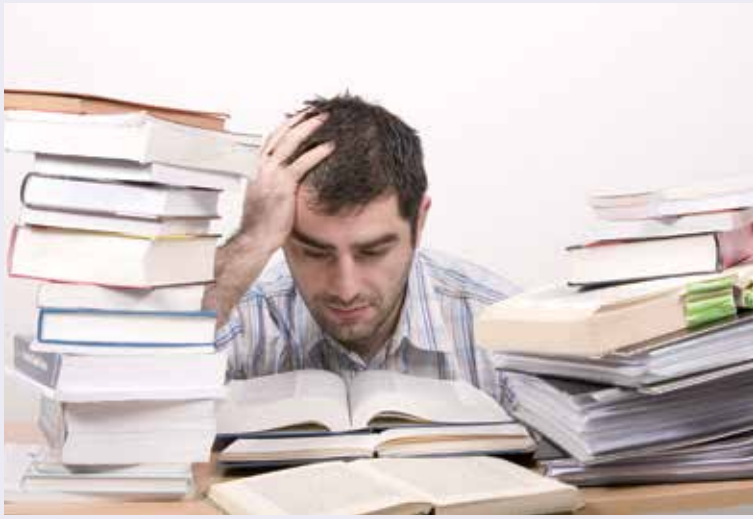
젊은 근로자들에서 일반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

출처 : Björkenstam, E., Helgesson, M., Gustafsson, K., Virtanen, M., Hanson, L. L. M., & Mittendorfer-Rutz, E. (2022). Sickness absence due to common mental disorders in young employees in Sweden: are there differences in occupational class and employment secto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7*(5), 1097-1106.

링크 : https://doi.org/10.1007/s00127-021-02152-3

젊은 연령층에서 우울, 분노,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신질환(common mental disorders)은 학업 성취, 취업 등에 있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직업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젊은 근로자에서 병가 사유의 상당 비율이 일반적인 정신질환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이들의 일반적인 정신 질환과 관련된 병가(sickness absence)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민간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Björkenstam 등(2022)은 스웨덴의 종단 코호트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분야와 직업계층, 일반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코호트 연구에서 19~29세 근로자 663,583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고용분야는 민간과 공공, 직업계층은 비육체직과 육체직으로 분류 하였다. 2010년과 2016년 사이에 일반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의 위험은 콕스 회귀분석(Cox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위험비를 계산한 뒤 추정하였다. 고용분야는 일반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즉 민간분야 근로자에 비해 공공분야 근로자들에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HR: 1.31 95% CI 1.29-1.33). 또한 육체직 근로자들이 비육체직 근로자들에 비해 일반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의 위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민간분야에서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는 육체직과 비육체직 근로자 모두 일반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 위험비 및 위험율이 높았다. 특히 육체직 근로자 중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병가 발생 위험은 공업(제조업)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높았다.

젊은 근로자들에서 일반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가 고용분야와 직업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젊은 근로자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리는 직업계층과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 ”

홍보주간 10월 7일~10월 20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년 '정신건강의 날' 내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투자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국민 정신건강포럼 공개세미나, <마음투자포럼>

마음에도 투자가 필요하니까!
정신건강 중요성과 마음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통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행사 실시간 시청 가능!
참가 신청 & 행사 참여
이벤트 확인! ▶

<http://마음투자포럼.kr>

1차 | 마음투자 북토크 콘서트

9.14.(수) 18:30~20:00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사회자>
김경아 리포터,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출연 작가>
김재식, 이라하, 리단

2차 | 마음투자 뮤직토크 콘서트

10.7.(금) 15:00~17:00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사회자>
배순탁 음악 전문 작가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뮤지션>
커피소년

3차 | 마음투자 정책 콘서트

10.21.(금) 14:30~17:00
여의도 글래드 호텔

- 주제 -
With 코로나, Reboot 정신건강

<발표자>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최연우 멘탈헬스코리아 대표
김도원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 위원회 위원장

<정신건강 홍보주간>

전국에 있는 다양한 행사
확인하기! ▶

<http://이제마음투자.kr>

정신건강 홍보주간에 있는 **다양한 '마음투자' 행사**에 함께 참여해볼까요?
(1)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2) 정신건강의 날 기념 심포지엄 (3)정신건강 R&D 성과발표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10.14.(금) 14:00~16:00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2호선 신촌역 2, 3번 출구)

1부 I 기념식	2부 I 정신건강 축제
사회자 : 김태진 정신건강의 날 유공자 포상식 마음힐링 미디어 퍼포먼스 등	뮤직 힐링 및 토크쇼 출연: 울랄라세션, 조문근

정신건강의 날 심포지엄 「정신장애와 자립」	**10.13.(목) 14:00~17:00** **국립정신건강센터** (7호선 중곡역 1, 2번 출구)	**열린강당**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의 의미 **어울림홀** 느린 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과 협업 **마음극장** 돌봄제공자의 마음건강 키우기
정신건강의 날 기념 정신건강 R&D성과발표회	**10.28.(금) 13:00~16: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호선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 정신건강 R&D사업 소개 • 정신건강 R&D 주요 연구성과 소개 및 질의응답 • 연구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패널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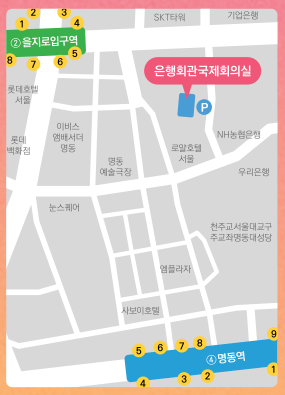
사전신청

사전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9월 28일 ~ 10월 19일

신청방법
① URL접속 또는 좌측 QR코드 스캔
(URL: https://forms.gle/PHfcc2SGUzkJ9ihJ6)
② 정신건강R&D성과발표회 신청서식 작성
(개인정보 동의 후 정보 입력)
③ 제출완료

찾아오시는 길



주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버스
을지로입구 하차
100 (파랑), 105 (파랑), 152 (파랑), 202 (파랑), 261 (파랑), 472 (파랑)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하차 5번 출구
4호선 명동역 하차 6, 7번 출구

*개인차량 주차지원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R&D와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정신건강 R&D사업 성과발표회

2022. 10. 28. (금) 13:00 ~ 16:30
은행회관국제회의실 | 온라인 실시간 중계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R&D사업단

초청의 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는 2014년부터 정신건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기반 정신건강 기술개발 외에도 정신건강R&D 사업기획 및 기반조성, 공공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R&D사업으로 도출된 우수연구성과 발굴 및 표준화, 임상 및 지역사회 현장적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기관은 정신건강R&D와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실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성과 환류를 통한 선순환체계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분야 연구자, 종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번 성과발표회를 통해 소개되는 연구성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신건강연구소장 **박 수 빈**

정신건강R&D 사업

프로그램

식 순			연자 및 내용
1부	인사말	13:00 ~ 13:05 (5분)	이영문 센터장 / 국립정신건강센터
	축사	13:05 ~ 13:10 (5분)	전명숙 과장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업소개	13:10 ~ 13:25 (15분)	박수빈 연구소장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휴식	기념사진 촬영	13:25 ~ 13:35 (10분)	주요내빈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2부	성과발표1	13:35 ~ 13:55 (20분)	손상준 교수 / 아주대학교 "지역사회기반 우울증 관리프로그램"
	성과발표2	13:55 ~ 14:15 (20분)	허지원 교수 / 고려대학교 "정신질환 고위험군 조기개입·자조모임 프로그램"
	성과발표3	14:15 ~ 14:35 (20분)	최기홍 교수 / 고려대학교 "한국형 우울·불안평가 도구"
	성과발표4	14:35 ~ 14:55 (20분)	유성은 교수 / 충북대학교 "재난정신건강지원 교육 프로그램"
	성과발표5	14:55 ~ 15:15 (20분)	정경운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정신건강 고위험군 프로그램"
	성과발표6	15:15 ~ 15:35 (20분)	이상민 교수 / 경희대학교 "적정 치료서비스 강도 판정을 위한 평가도구"
	성과발표7	15:35 ~ 15:55 (20분)	이상규 교수 / 한림대학교 "병원-지역사회 통합 알코올중독 프로그램"
휴식	BREAK TIME	15:55 ~ 16:10 (15분)	장내 정리 및 토론 세팅
3부	패널토론	16:10 ~ 16:40 (30분)	좌장&토론1: 박수빈 연구소장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토론2: 전준희 협회장 /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토론3: 허지원 교수 /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토론4: 이중서 교수 /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행사 종료	16:40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TEL (02) 2204-0373 FAX (02) 2204-0393
http://www.ncmh.go.kr/

02
9 772671 417005
ISSN 2671-4175